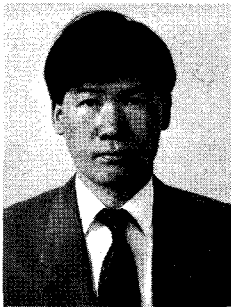


발명으로 꿈을 이룬 세계의 여성들 (5)



鄭榮春
〈발명가, 코리아스엔 대표〉

이 글은 저자 정영춘 씨의 저서 '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화동출판사)의 내용으로 저자의 승낙을 받아 연재하는 것임.

〈편집자 주〉

항상에 항상을 더한다

70년 동안 여인 3대에 걸쳐 운영되는 공장이 있다. 1922~56년은 조하나가 운영했고, 1949~89년은 윌레민이 운영했으며, 현재는 조하나 2세가 운영하는 공장이 바로 그 곳이다. 이 공장은 옷의 테두리장식과 주름장식을 바느질하는 곳이 아니라, 중장비기계 설비가 갖춰진 공장으로서 금속과 플라스틱을 다루는 곳이다. 이 공장에서는 자전거 제조업자들을 위한 부속품을 생산하고 있다.

여인 3대 중 2대인 윌레민은 발명가다. 윌레민은 정력이 넘치며 운동을 좋아하는 여성이다. 그녀의 두 눈은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다.

필자는 45명의 근로자들이 땀흘려 일하고 있는 바나벨드에 위치한, 더 워드 공장으로 윌레민을 방문하였다. 가장자리를 나무로 둘러친 공장 대지가 초록빛 카펫처럼 약 4,000m² 부지 위에 펼쳐져 있다.

“난 포기해본 적이 없다”라고 윌레민은 말했다. “몇년 동안 난 자전거 체인 케이스 발명에만 매달려 있었다. 우린 플라스틱을 사용했는데 처음엔 거래인들 중 그것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필자는 윌레민에게 그녀의 가족관계를 물어 보았다.

“아버지는 26세 나이로 1922년 내가 태어나기 2주 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 조하나는 혼자가 되어 아기였던 저와 오빠, 그리고 공장을 맡게 되었다. 어머니는 늘 1인4역(사업가, 가정주부, 어머니, 아버지)을 해야 했다. 어머니는 뛰어난 감수성을 지닌, 강한 여성이었다. 어머니는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셨고 불의는 참지 못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네덜란드 레지스탕스를 도우기도 하였다.”

윌레민은 1951년에 찍은 사진 한 장을 필자에게 보여주었다. 네덜란드 버나드왕자가 군대 훈장인 브론즈 라이언을 조하나 밴더 워드에게 수여하는 모습이었다.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다. 우리 공장은 레지스탕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기계와 상자 뒤로 라디오 송신기와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 우리 무기와 배급표를 옮기기 위해 비밀칸이 달린 특수 자전거 백을 생산했다. 자전거 체인 케이스 제조는 상징적인 ‘놈 데 게레(nom de guerer)’ 표시를 부착했다. 레지스탕스는 그것을 ‘체인(de ketting)’이라고 불렀다.”

“평화시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원자재가 부족했고, 사람들은 가난했다. 네덜란드에서 자전거는 필수품이었지만 당시에 체인 케이스를 첨가하는 일은 사치스러워 보였다. 오빠가 캐나다로 이민갔을 때 어머니와 나, 단 둘이 남아 공장을 맡게 되었다. 남편도 가축 식품공장을 갖고 있었지만 협조적이어서 많은 힘이 됐다. 첫해에는 사무일을 맡았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았다. 내가 늘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는 기술이었다.”

자전거 기술자들은 윌레민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몇년 동안 그녀는 체인 케이스 일을 하면서 보호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디자인 및 새로운 구조를 시도해보았다.

“70년대까지 체인 케이스는 1880년경 영국에서 발명된 기름떡인 천으로 만들었다. 우리 시대를 앞서 갔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기름떡을 플라스틱 케이스로 바꾼 것이다. 꿰매고 걸고리를 달아야 했으므로 옛날 기름떡 체인 케이스는 한가지 모형을 주물로 만들어서 기계로 만들어내면 되었으므로 간단한 일이었다.”

윌레민은 그 플라스틱 체인 케이스가 그녀만의 창조품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녀는 그것을 기술자 윌렘 케리츠와 함께 개발했었다.

윌레민 밴 더 워드는 많은 발명품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체인 케이스와 부속품들이다. 드레스와 양복 바지를 위한 보호 장치는 자전거 운전자의 옷을 보호해준다. 또한 앞자리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 유리판도 있고, 많은 종류의 관련품들이 있다. 이 발명품들 중 일부는 윌레민 자신의 창작품들이며, 일

부는 공장에서 그녀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매주 아이디어를 토론하며 일구어낸 결실이다.

두 쪽으로 된 플라스틱 체인 케이스는 단순한 시스템인데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전거 공장에서 쉽게 그리고 빨리 조립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낡은 체인 케이스를 바꾸고 싶어 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새로운 것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는 예쁘기도 해야 하며 유행에 맞도록 색채도 화려해야 한다.

“플라스틱에 잘 칠해지고 햇빛, 눈, 비 그리고 서리에 잘 견디는 페인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수백 번의 시험을 했다. 새로 페인트 칠을 한 플라스틱 체인 케이스를 -20℃의 냉동실에 넣어 보기도 했다. 직원들은 그것을 구부리려고 했을 때 그 케이스는 ‘뽕’소리를 내며 부러지기도 했다.”

그 당시는 진짜 개척 시절이었다. 요즈음 밴 더 워드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금속 처리된 무지개 빛 플라스틱, 전기로 래커칠한 체인 케이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윌레민은 자신의 체인 케이스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옛 표어, ‘당신의 자전거 소’를 생각한다고 말한다.

자전거 공장에서는 특수 장식이 달린 체인 케이스도 주문 제작할 수 있다. 필자가 본 가장 아름다웠던 케이스는 음악 그룹을 위해 칠을 한 것으로 검은색 바탕에 황금색 음계가 그려진 것이었다.

듣기 편한 음악 또는 직원들을 즐겁게 해준다. 요즘 공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흔한 모습이겠지만, 신체장애들이 일하고 있는 다른 데서는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그들의 일부를 보조해주긴 하지만 그들을 고용하는 것은 거의 윌레민의 철학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들도록 해줄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업 성격상 한꺼번에 5명 이상의 장애자를 고용할 능력은 없다.”

상상해 보면 알 것이다. 자전거의 ‘우수성’으로 알려진 네델란드에서 업체끼리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1985~86년 동안 유럽에서 많은 자전거 공장들이 파산할 때 윌레민도 매우 어려운 고비를 겪었지만 다행히 요즘은 상황이 좋아졌다. 건강 추진운동과 환경보호 영향으로 자전거는 다시 유행이다. 1989년에는 백만 개의 부속품, 체인 케이스, 체인 보호장치, 옷 보호장치, 기타 제품들을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다.

공장의 장래는 이제 조하나 2세의 손에 달려 있다. 윌레민은 1989년 경영권을 딸에게 넘겨 주었다. “모든 일엔 제 시간이 있다.” 라고 윌레민은 말한다. 하지만 아직 그녀의 마음 저편에선 여러 가지 발명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결국 발명은 추가하는 것이 아닌가.

윌레민에게서 떠나기 전에 “아이디어들은 언제, 어디서 떠오르는가?”라고 물어보았다.

회색 머리칼을 부드럽게 매만지면서 윌레민은 대답했다. “글쎄..., 어느 곳에서든지 조금씩, 그리고 언제든지, 사무실에서는 물론이고 특별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운전할 때도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도, 또는 유리창을 닦으면서도, 내 머리속에는 두 사람이 들어있다. 하나는 절대 생각을 멈추지 않는 발명가며, 다른 하나는 안전망 없이 줄을 타는 곡예사 같은 기분이 드는 기업가다. 멈출 수가 없다. 그저 늘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그녀는 미소를 짓는다. “향상시킨 것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은 나의 신조다.”

세계적 기업가로 성장한 가정주부

드레스덴(당시는 ‘독일의 작은 Paris’라고 알려짐)에 살고 있는 벤츠 일가는 1908년 6월 어느 날 아침, 운이 나쁜 출발을 하였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프라우 벤츠는 화가 나 있었다. 우유는 너무 뜨거웠고 커피는 졸아 마실 수가 없었다. 화가 난 프라우 벤츠는 양철 그릇 바닥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었다. 그 다음 압지(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종이)를 동그랗게 오

렸다. 그 압지를 큰 단지 위에 있는 양철 그릇 속에 넣었다. 종이로 감싼 커피 가루에 끓는 물을 부으면 필터는 모든 찌꺼기들을 걸러내었다.

프라우 벤츠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래서 커피 필터가 탄생했다. 커피 가루를 거르기 위해 여러번 사용한, 손으로 껴맨 린네르 ‘천 주머니’는 과거의 물건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 멜리타를 통해 프라우 벤츠는 유명해졌다. 멜리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단순함 때문에 유명해진, 이 필터는 가장 뛰어난 발명품에 들지는 못하지만 일상생활에 이것만큼 큰 영향을 끼친 것도 드물다.

1873년 7월 31일 태어난 멜리타 벤츠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그녀는 빈틈없는 사업가이기도 하였다. 그런 발견을 한 바로 그 날 특허신청을 하여 1908년 7월 8일 특허를 받았다. ‘쇠는 달았을 때 두들겨라’란 말이 있듯이 프라우 벤츠는 곧바로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백화점 매장 매니저로 일하는 남편 휴고와 함께 그녀는 회사를 설립하여 멜리타란 상표를 가정용품의 이름으로 전세계에 알려지게 하였다.

사업은 1908년 12월 5일, 멜리타의 집에서 시작하였다. 이 곳에서 멜리타, 남편, 그리고 두명의 이들은 커피 필터를 만들었다. 몇 년 뒤 늘어난 주문량은 더 많은 근로자들을 필요로 하였다. 1914년 멜리타는 15명의 직원을 고용하였다.

이 회사는 1922년에 프라그(prague)로, 그 후엔 바셀(Basel)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점점 늘어나는 경쟁회사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회사의 심벌이 필요했다. 선명한 빨강, 초록색의 멜리타 로고가 만들어져 해가 거듭될수록 널리 알려졌으며, 광고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1929년 벤츠 가는 하노버 서쪽에 있는 민텐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공장파 사무실 본부를 차려 지금까지 60년 이상이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멜리타의 아들 호스트 벤츠가 총관리

자 되었다가 1980년 그 자리에서 은퇴했다.

여러 해 동안 커피 필터는 지속적인 성공을 했지만, 멜리타는 편히 앉아서 이미 얻은 명예에 익숙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종이 필터와 금속 보조기를 향상시킨,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내었다. 1932년 필터는 원추형으로 발전하여 커피를 좀더 빨리 걸러내도록 개선되었다. 그 후 모양은 바뀌지 않았다. 1940년에는 금속 보조기를 좀더 단단한 자기로 바꾸어 커피 향기가 더욱 좋아지도록 했다. 멜리타는 헌신적인 연구가일 뿐 아니라 타고난 대중적 사교성이 있어 새로운 시장을 계속 찾아냈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무감각한 사업가가 아닌, 항상 어려웠던 시절,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을 기억했다. 멜리타는 직원들을 어머니처럼 정성껏 돌봐준다. 그리고 그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멜리타의 손자들은 1950년 운명한, 비상한 재능을 가졌던 그들의 할머니가 시작한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멜리타사의 기본 상품은 종이 필터로 1시간당 1만 8,000m씩 제조되어 40종류가 넘는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커피 필터 생산에 사용된다. 멜리타사는 생산 범위를 확장해서 진공 청소기 백, 종이 타월 등과 같은, 종이로 만든 가정용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전기 커피 주전자는 더 섬세한 필터 시스템으로 멜리타사는 자사 제품을 더 넓은 범위에 적용시켰으며 가루 커피도 시판하게 되었다.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멜리타사도 도자기 식기 세트, 담배 그리고 과일 주스 등과 같은 여러 분야까지 생산품을 다양화시켰다.

오늘날 멜리타사는 18개 국가에서 8,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105개 국가에 상품을 팔고 있다. 1년 매출은 약 9억 5,000만 달러에 이른다. 현명한 독일 가정주부의 창의력과 긴 안목 덕분에 멜리타사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좋은 상처가 가져온 성공

1945년 8월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의 여파로 공포와 고통이 전일 본을 휩쓸고 있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당시 35세였던 후미코 히가시야마의 남편이며 의사인 한 남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그 충격은 너무 커서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더욱 심했다. 그녀의 얼굴에 난, 보기 흉할 정도의 상처가 갑작스레 더욱 두드러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후미코는 의학전문과의와 만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했으나 피부병 전문의는 치료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녀는 고통과 추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 또한 거절했다. 문제의 근본과 그 해결방법을 스스로 찾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당시 나이가 40세인데다 국민학교 1학년 교육밖에 받아보지 못한 그녀로서는 의학과 화학세계에 관해서 맨 밑바닥부터 공부해야만 했다. 자신의 얼굴에 이것 저것 다른 로션을 사용해 보고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기를 기대하며 계속 공부하고 연구했다.

마침내 2년 후에 그녀는 노력한 결과를 얻었다. 그녀의 성공 비밀은, 정평있는 전문가들이 연구하기를 포기한 분야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데에 있었다면서 “나는 의사가 아니며 내가 아는 것은, 사람은 끊임없이 의문을 갖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발명가 후미코는 말했다.

히로시마 참사 후에 후미코는 재혼해서 딸을 둘 낳았다. 그녀의 발명이 성공했을 때 그녀는 산쇼(Sansho)주식회사라는 화장품 회사를 설립해 사장이 되었다.

히로시마로부터 도쿄 게이오백화점의 네온사인 조명 아래까지는 너무나 멀고도 긴 길이였다.

그녀의 발명품은 프로메(Prome)라는 상표로 빛을 발하고 있으며, 의학적인 화장품으로서 일본여성발명협회(JWIA)가 선정한 ‘좋은 아이디어 코너’에서 잘 팔리고 있다. <♣>